

TV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코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육종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송년특집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자전거 55 튜튼생활채널	40 월화 드라마 <힐러>(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내조의 여왕(재)	00 KBS 네트워크 특선 경남100경 완전정복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그린실버 고장이 좋다	10 KBC 생활뉴스 30 박시백의 세계유산순례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요말		1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12뉴스 45 닥터 365 55 씨네 포트(재)
1 40 김부장의 뉴스통	00 TV 아라과(재) 50 콘서트 필재	00 엄마의 탄생(재)	00 MBC 네트워크 특선 (평화, 맛의 재구성) 55 꾸러기 식사교실	55 날씨와 생활
2 50 직언직설	30 영상앨범 산(재)	00 KBS 뉴스타임 10 황금의 펜던트 시즌2(재)	25 투독 키즈쿨 55 MBC 뉴스	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KBS 뉴스 10 역사저널 그날	00 꼬마신랑 궁도령(재) 30 자동차공부생 위기	05 헬로키티 블루랄라 공동여행 55 내사랑 똥	00 SBS 뉴스 10 꾸러기 탐구생활 스페셜
4 00 정오판의 시사병법	00 시사진단 55 튜튼 생활 체조(재)	00 TV우치원 콩다콩 30 두리둥실 용개공왕2(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공의 라이벌 프리즘 스톤 30 변신자동차 포퓰
5 00 하중대의 캐드난마	00 KBS 뉴스 5 20 동물들의 세계 40 남도 지오 그래픽	00 외계가족 줄리폴리 20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정보통	10 생방송'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00 시사저널 때때부때 20 일일드라마 (달라질 것임)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 사랑)	30 생생정보통 플러스 50 위기탈출 넘버원	55 2014 MBC 방송연예대상 1~2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00 월화드라마 <펀치>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2014 트로트 대축제	00 월화 드라마 (힐러)		15 송년특집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1 10 여변호사가 말한다	55 송년특집 독해야 산다	1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40 살맛 나는 세상 스페셜 ①:40 버비킴-이우마의 TV 예술무대	50 나이트 라인 ①:10 테마 스페셜
12 10 모큐드라마<싸인>(재) ①:20 맥거리 X파일(재)	50 KBS 뉴스 ①:00 T 타임 30 일일특 50 KBS 파노라마 플러스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해외걸작드라마 (아름단디스) ①:35 특파원 현장보고(재)		



90년대 추억여행에 안방극장 '후끈'

'무한도전-토토가' 시청률 19.8% 기록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끝난 건가요. 이제 언제 또 하죠? 매 순간 정말 기억하고 싶어요.” (그룹 'SES') '잠깐' 돌아온 요정들의 눈물에 TV 앞에 앉은 사람들도 울었다. 국내 가요계 르네상스로 여겨지는 1990년대 가수들의 귀환 무대가 지난 27일 토요일 저녁 안방극장을 달랐다. 이날 오후 6시25분부터 방송된 MBC TV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연말 특집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이하 토토가)를 통해서다. 시청률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 시청률은 19.8%(전국 기준)로 집계됐다. '토토가' 준비 과정을 담은 지난 20일 방송(15.3%)보다 4.5% 뛰어오른 수치다. '무한도전'이 올해 얻은 최고 시청률이며 10~13%를 오갔던 '무한도전'의 평소 시청률과 비교해도 놀라운 성적이다. 토토가에는 '터보'(김종국과 김정남), 김현정, 콜(이재훈과 김성수), 조성모, 소찬휘, 이정현, 지누션, 엄정화, 김건모 등 그 시절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가수들이 총출동했다. SES는 출산 준비로 빠진 유진을 대신해 소녀시대 서현이 바나나, 슈와 호흡을 맞췄다. '무한도전' 멤버이자 '토토가'를 기획한 박명수, 이날 사회는 '무한도전' 멤버이자 '토토가'를 기획한 박명수,

정준하와 특별 초청된 이본이 맡았다. 첫 무대는 18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댄스 듀오 터보가 장식했다. 1990년대에 유행한 헝가리 의상과 화려한 선글라스로 무장한 김종국과 김정남은 '나 어릴적 꿈'과 '러브 이즈',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 3곡을 부르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롱다리 미녀 가수' 김현정이 등장해 여전한 가창력으로 '그녀와의 이별'과 '땀'을 소화했다. 영원한 요정 SES가 '아임 유어 걸'과 '너를 사랑해'로 마지막 무대를 꾸몄다. 아기 엄마가 되거나 행사가수로 살다가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오빠와 언니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향수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들이 이날 부른 곡들은 음원사이트 지니와 올레뮤직 등의 실시간 차트에 오르고 있다. 1990년대를 수놓았던 노래나 가수를 다시 만날 기회는 다른 방송에서도 있었지만 '토토가'가 이렇게까지 호응을 얻은 데는 당대 무대를 제대로 재연하려고 애쓴 제작진의 공이 컸다. 제작진은 무대디자인과 촬영·자막까지 90년대식 기법들을 도입한 것은 물론 90년대 유행했던 가수들의 희귀 셀프 카메라 영상과 2014년 버전의 '토토가' 셀프카메라도 공개했다. '무한도전' 특유의 감칠맛 나는 해설 자막도 재미를 더했다. '토토가'는 다음주에도 다른 가수들의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미생 시즌 2에서는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미생' 강소라 "안영이와 싱크로율 40% 정도"

“음, 절대로. 절대 못 해요.” 오물거리며 오징어 튀김을 먹느라 여념이 없던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손사래를 쳤다. '현실 속 직장인 생활을 해 볼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배우 강소라(24)의 반응이다. 강소라는 그 이유로 규칙적인 생활이 좀처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종영한 tvN 금드라마 '미생'에서 종합상사 원인터내셔널의 푹 부리진 신입 사원 안영이를 맡은 강소라의 연기는 나무랄 데 없었다. “미생”을 찍는 동안 저 자신이 꼭 강대개 같았다”고 말하는 강소라를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이렇게 많은 분이 '미생'을 좋아할지 몰랐어요. 그냥 이 작품을 안 하면 크게 후회하겠다 싶어서 작품을 선택했어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었던 시기에 '미생'을 시작했는데 스스로 치유하는 느낌일 것 같았거든요.” “미생”은 직장인들의 희로애락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면서도 극적인 재미를 놓치지 않으면서 올해 최고의 화제작으로 기록됐다. 안영이는 신입 사원뿐 아니라 여성 직장인의 비에도 담아낸 캐릭터로 시청자의 호응을 얻었다. “안영이가 워낙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당한 것이 많다 보니 인간관계에서는 서툴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잘 다가가지 못하고 남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남들이 민폐를 주는 것도 싫어하는 거죠. 안영이 캐릭터를 그렇게 내면 상처가 많은 쪽으로 설정했어요. 외양적인 면에서도 여성성을 갖지 못한 안영이가 아빠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이제 머리도 기르고 화장도 하는 거죠.”

아직 동국대에서 연극을 공부하는 학생 신분인 만큼 강소라에게는 조직 문화를 익히기는 부담이었다. 그는 촬영 전 대우 인터내셔널에서 인턴 체험 등을 하면서 동료에 대하는 사람들의 몸짓과 책상 풍경 등을 유심히 봤다고 전했다. 강소라는 “직장인들이 배우들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생활할 것이라는 인식이 먼저 깨졌다”면서 “직장인들은 경쟁이 치열하고 업무 부담은 많은데다 조직에 몸담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았다”고 강조했다. 강소라에게 자신과 안영이의 싱크로율을 물었더니 “숫자로 따지면 40% 정도인 것 같다. 안영이만큼 독하지는 못하지만 일 자체를 즐기는 면은 정말 비슷하다”고 답했다. 무척 활기차게 이야기를 이어가던 강소라는 종방엔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말을 잊지 못했다. “제가 종방엔 때도 많았는데 이런 작품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았기 때문이죠……” 겨우 눈물을 멈춘 강소라는 “미생”을 찍는 4개월 동안 안을 얻었는데……이런 작품에 정말 애정이 컸다”고 말한다 다시 활짝 눈물을 쏟았다. 나중에는 그의 코끝과 눈언저리가 붉게 물든 것이 멀리서도 보일 정도였다. 강소라는 다음 작품 활동에 대해 “아직 딱히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매끄럽고 활기찬 캐릭터, 제 실제 모습이 많이 투영된 캐릭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안영이가 시즌2에 나온다면 무엇보다 승진했으면 좋겠네요. 하하하. 그리고 이번 드라마에서는 자유팀의 경우 배미할 수 있는 회사 장면이 안 나왔어요. 시즌2에서는 회사이라도 하면서 인간적으로 팀원들과 친해진 장면이 많이 그려졌으면 해요.”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부모광장)	14:45 코코몽2	19:00 지파이터스
05:40 나의 성공비결	10:10 EBS 특강	15:00 신나는 오정 학교	19:30 EBS 뉴스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지구를 지켜라	19:50 리얼극장 <여미니>
07:00 코코몽2(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울리바	20:40 다류 오늘
07:15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1:20 세계테마기행 <중국한시기행6 청장 2>(재)	15:45 피터 래빗 <인디언탈라를 보는 눈, 망원경>	20:50 세계테마기행 <북한 시간으로의 초대, 요르단>
07:30 풍선 꼬끼리 발루보(재)	12:00 EBS 뉴스	16:00 당동영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군산>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재)	16: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낯선 시간으로의 초대, 요르단>	21:50 EBS 토크클럽
08:00 당동영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35 오스카의 오아시스	22:45 달라졌어요
08:20 두다다콩(재)	13:1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16:45 골디와 친구들(재)	23:35 세계 걸문록 아틀라스 <100세 청춘 장수준을 가다, 사르나>
08:35 방귀대장 뽀잉이	13:3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17:00 방귀대장 뽀잉이(재)	18:00 EBS 인문학 특강
08:50 골디와 친구들	13:50 초등 5년 겨울방학생활	17:15 풍선 꼬끼리 발루보	
09:05 원더 볼츠(재)	14:10 소프트웨어 놀자	17:30 꼬마버스 타요	
09:20 출동 슈퍼원스(재)	14:30 부릉! 부릉! 부릉!미즈	17:45 두다다콩	
09:35 아기고릴라 동동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2016 수능열기 <유종현, 윤선영의 국어>	12:10 2016 수능개념 <윤선영의 영어>	07:00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강좌	16:00 초등 5년 겨울방학생활
00:50 <오광석의 수학 1>	13:05 <윤선영의 영어>	07:30 나의 성공비결	16:20 K팝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01:40 <문재인의 영어>	14:00 고등예비과정 <김소연의 수학 II>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50 학교교육 드라마 <어린이 손자병법>
02:30 수능갈집이 <문학>	14:50 <주해인의 영어>	08:30 검정고시대비 강좌	17:20 백점공략 중학수학1 <수학 ③>
03:20 <수학 1>	15:40 2016 수능열기 <오랜지의 영어>	09:50 <국어 ①②>	18:00 중학예비과정 <영어 ③>
04:10 <미적분과 통계기본>	16:30 <유종현, 윤선영의 국어>	09:50 <국어 ③④>	18:40 <수학 ②>
05:50 <영어특해 유형>	16:30 <오광석의 수학 1>	10:30 <영어 ①>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06:40 <박근영의 미적분 1>	17:20 <김소연의 수학 1>	11:10 <수학 ①>	20:00 EBS 기획특강 <수학 ③>
07:30 <차현우의 미적분 II>	18:10 고등예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11:50 <국어 ⑤⑥>	20:50 EBS 기획사극 <영어 ②>
08:20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19:20 <최은진의 수학 1>	12:30 <영어 ②>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수학 ②>
09:10 <독서와 문법>	20:00 <김소연의 수학 II>	13:10 <수학 ②>	22:00 중학예비과정 <국어 ①②>
10:00 고등예비과정 <장동준의 국어>	20:50 <주해인의 영어>	13:50 중학 m포스 수학 1, 2	22:40 <국어 ③④>
10:50 <최은진의 수학 1>	21:50 수능갈집이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15:2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23:20 중학 e포스 영문본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5:4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24:00 세계신문록 아틀라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9일(음 11월 8일 甲戌)

子	36년생 가다가 잡히는 모습이나, 48년생 미련을 갖지 말고 정리하는 것이 낫다. 60년생 자주 변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 72년생 지난 일은 소용이 없다. 84년생 계획해 왔던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진행하라. 행운의 숫자 : 14, 96	午	42년생 찬스를 잡지 못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물리게 된다. 54년생 행하다 보면 부가적으로 따르는 번거로움이 많을 것이다. 66년생 매우 기뻐하는 태이다. 78년생 서로 입장이 뒤바뀌게 될지도 모르니라. 행운의 숫자 : 07, 17
丑	37년생 훌륭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가 보인다. 49년생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라. 61년생 불만족스러워 하는 이가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73년생 부담스러울 것이다. 85년생 상황에 부합하여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2, 08	未	43년생 뜻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펼쳐야 하리라. 55년생 국면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임박하고 있다. 67년생 사소하고 고역기 쉬운 일이라도 주의해야 하리라. 79년생 과욕 한다던면 않는다. 행운의 숫자 : 54, 85
寅	38년생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자기 주관이 절실한 때이다. 50년생 체제를 잘 해야 할 마당이다. 62년생 앞날에 있어서 참으로 좋은 징후가 보인다. 74년생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41, 66	申	44년생 보태고 더 채워서 튼튼히 해야 하느니라. 56년생 그럴듯 한 겉모습에 현혹되면 큰일 나는 수가 있다. 68년생 실행하기에 좋은 시기에 와 있다. 80년생 처음부터 대단히 애를 먹게 될 것 이다. 행운의 숫자 : 86, 31
卯	39년생 요령만 터득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51년생 갈등이 터부서 오고 있으니 기로에서 현명한 선택들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63년생 심한 여과가 따를 것이다. 75년생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74, 05	酉	45년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57년생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주변의 인물이 있을 것이다. 69년생 완벽하고 유일한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낫다. 81년생 어려울 보일 뿐이지 실행하면 쉬워진다. 행운의 숫자 : 04, 22
辰	40년생 판단을 잘 하면 큰 것을 잡을 수 있다. 52년생 적극적으로 찾아내야만 하는 중저대한 편이다. 64년생 생산적인 관점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76년생 흐름을 잘 파악 해 놓지 않으면 어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87, 94	戌	46년생 강을 겸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58년생 지연 되면 손해를 부르니 속전속결하라. 70년생 우려해 왔던 바가 현실화 될 수도 있는 국면이다. 82년생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행운의 숫자 : 99, 01
巳	41년생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다하는 것이 무난한 장래를 여는 길이다. 53년생 직접 하기 힘들면 시켜서라도 행하는 것이 좋다. 65년생 예기치 않는 정황이 벌어진다. 77년생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행운의 숫자 : 95, 53	亥	47년생 부응하지 못해서 대단히 애석할 것이다. 59년생 처음에는 무기력하다가 나중에는 활발해지겠다. 71년생 상대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아니 된다. 83년생 문제를 수습하느라고 아무런 정신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6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유재석 'KBS 연예대상' 9년만에 대상 수상

개그맨 유재석(42·사진)이 27일 '2014 KBS 연예대상' 대상을 받았다. 유재석은 지난 2007년부터 '해피투게더3' 진행을 맡고 있으며, 최근 막을 내린 남성 집단 토크쇼 '나는 남자다'도 진행했다. 유재석이 KBS 연예대상을 받은 건 지난 2005년 이후 9년 만이다. 유재석은 “오늘 상을 받을 줄 정말 몰랐다. 제가 제작진과 '해피투게더', '나는 남자다'를 열심히 했지만 다른 가라성 같은 프로그램에 비하면 이 상을 받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이어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것이 가장 아프지만 함께 열심히 한 동료들이 떠나갈 때 가장 마음이 아프다”면서 “나는 남자다”를 함께 진행한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김형희·김대희(이상 코미디), 김지민·추



성훈(쇼오락)이다. 우수상은 허안나·조운호(코미디), 김신영·테코(쇼오락)에게 돌아갔다. 시청자가 뽑은 최고 프로그램상은 육아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받았고, 최고 엔터테인먼트상은 정형돈·정준영(배리어터), 조우종·아나운서(쇼오락)가 차지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인 송일국과 그의 세 쌍둥이 아들 대한·민국·만세, 이휘재와 그의 쌍둥이 아들 서언·서준, 추성훈과 그의 딸 사랑이 인기상을 받았다. /연합뉴스